

2008년 05월 15일 (목) 09:37 [뉴스시스](#)

## 롯데,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립 추진

【부산=뉴스시스】

롯데그룹이, 부산 북항 부지에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여 부산시에 기증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15일 [부산시청](#)에서 [허남식](#) 부산시장과 이인원 롯데정책본부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와 '샤롯데 뮤지컬 센터(가칭)'건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샤롯데 뮤지컬 센터'는 오페라와 뮤지컬을 공연할 수 있는 1500석 규모의 대극장과 일반 공연을 위한 소극장, 그리고 부대시설 등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 건축비는 1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연면적 7000평(23,100㎡) 규모의 오페라 하우스 '샤롯데 뮤지컬 센터'는 중구와 동구 일대 구 항만을 개발하는 북항 재개발사업 부지에 세워진다.

이에 따라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위한 기본 설계는 부산시가 담당하고, 건립은 롯데그룹이 진행해 향후 샤롯데 뮤지컬 센터를 문화 관광의 명소로 키워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건립 기증은 [롯데 그룹](#)이 부산시와 부산 시민단체의 문화공연장 건립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오페라 하우스 추진기구로 롯데와 부산시 문화 예술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샤롯데 뮤지컬 센터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롯데는 "20억원을 부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 올해 하반기에 국제 공모를 실시한 후, 디자인과 설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샤롯데 뮤지컬 센터는 그 동안 각종 문화공연 시설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부산 등 지방 대도시에서의 대형 문화공연은 제한적이었다.

매년 열리는 대구 국제 오페라 페스티벌의 경우 평균 객석 점유율이 88%이며, 관람객의 10% 정도가 서울과 부산 등에서 찾아올 정도로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 되고 있다.

부산시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호주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매년 수 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은 것처럼 샤롯데 뮤지컬 센터도 이를 능가하는 명소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특히 부산 오페라 하우스 주변 지역은 해양문화·IT영상 전시지구, 상업 업무지구 및 복합 항만지구, 항만시설지구 및 복합도심지구 등으로 순차적인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부산시는 부산 북항 재개발 부지를 2020년까지 '친수(親水), 국제 관광지역'으로 만들 계획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부산시와 지역 민간 전문가, 그리고 문화예술 단체와 함께 폭넓은 협의를 통해 부산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샤롯데 뮤지컬 센터를 계기로 부산이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공연 문화의 메카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갈수만기자 [jgsm@newsis.com](mailto:jgs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스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